

회 의 록

| | |
|--|--------------------------------|
| 회 의 명 | 2023년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
| 회 의 개 최 기 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회 의 개 최 일 시 | 2023. 12. 20.(수) 15:00 ~ 16:00 |
| 회 의 장 소 | 금정구청 3층 중회의실 |
| 참 석 자 명 단 | 위원장(구청장) 등 9명 |
| [회의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개 회/ 참석자 소개신규위촉장 전달회의자료 보고 및 현안사항 공유기념촬영 및 폐회 | |
|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위촉자 위촉장 전달<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철홍(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본부장)- 신동희(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박순희(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 김경환(고용지원팀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자료 설명(노사민정 동향, 2023년 추진실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개선방안 등)○ 위원장(금정구청장 김재윤)<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랜만에 하는 회의니만큼,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과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음.○ 문철홍(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본부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으로, 5인 이하의 영세 기업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며, 심한 경우 파산하기도 함. 산재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음. 고용노동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방향은 가나 확정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음.○ 위원장(금정구청장 김재윤)<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철홍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구에서도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지양하고 예방행정을 강조하고 있음. 중소기업측에서는 산재가 발생해서 구속되면 기업의 존폐가 갈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됨.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신동희(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임.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법 개정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임. 올해 우리 관할 구역 내 사망사고가 9건이 있었는데, 전부 건설분야인 것에 주목하고 있고, 금정구도 1건 있었음. 그러나 금사공단에 제조업체 등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

- 문철홍(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본부장)
 - 중소기업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도 정책이 확정되면 협력해주기 바람.
- 위원장(금정구청장 김재윤)
 - 오늘 회의자료에서 공유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 박철우(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주요 발생원인 중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임. 금정구는 대학이 많아 청년들이 많은데도, 정규직으로의 취업률이 낮은 편임. 중소기업 인증제, 창업 수기 공모,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제도를 공유해주면 좋겠음. 이런 것들을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했으면 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힘을 실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최성락(대동대학교 교수)
 - 금정구에서 청년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또 대학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 보니 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잘 모름.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기획 등 교육을 추진해주면 좋겠음.
- 신동희(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 대학에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용노동부 정책이 근로자편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
- 위원장(금정구청장 김재윤)
 -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제도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기업임. 관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의 민원을 해결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창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 대학측에서도 많은 연구와 지원이 있었으면 함.
- 강재호(금정구 의회)
 - 내년 구 예산 사정이 안좋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번 구의회 예산심의에서도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음.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음.
- 위원장(금정구청장 김재윤)
 -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컨설팅도 받아보고, 회의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겨 그 해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임.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경환(고용지원팀장)
 - 기념촬영 및 폐회